

周濂溪의 太極圖說과 退溪學**

謝 一 民*

● 目 次 ●

提 要	V. 太極圖說思想蠡探
I. 序 論	VI. 朱子와 退溪의 太極論에 있어서의 차이
II. 濂溪先生의 生平 및 著作	VII. 退溪 太極圖解의 箋釋
III. 太極圖의 원류에 대하여	VIII. 結 論
IV. 太極圖와 無極圖의 相異에 대하여	

提 要

濂溪先生은 공맹유가의 道統을 이었고 더하여 노장학의 精華를 채택하고 그 장단점을 보충하여 太極圖說을 지었다. 이는 天理의 근원과 만물의 終始를 궁구한 것으로, 言辭는 간략하나 道體는 크고 문장은 질박하나 의리는 광대하여 위로 洙泗學을 계승하고 아래로 程朱學을 열었다. 宋明兩代의 유학은 대체로 이에 닮히어 그 영향을 받았다.

퇴계선생은 聖學十圖의 체계를 창출하였는데 먼저 태극을 계시하여 조화의 지극한 이치를 밝혀 道術의 연원으로 삼았다. 태극의 뜻을 闡釋함에 있어 濂溪와 心意가 서로 합치되었으며 朱子의 경지를 초월하고 있다. 悟道의 깊음과 투철함은 실로 이미 儒門의 堂奧에 들어가 성역 속에서 우유자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成功대학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4호(1982) 게재논문

본고의 목적은 전술한 요지를 이어서 염계선생의 生平 및 저작, 太極圖源流考, 太極圖와 無極圖의 상이점의 변별, 태극도설의 思想蠡探, 주자와 퇴계의 太極에 대한 이해의 차이, 퇴계 태극도설의 箋釋, 결론의 차례로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퇴계선생의 태극도설과 퇴계학을 밝혀 보려는 데 있다.

I. 序 論

공맹 이후로 聖學이 不明함이 오래였다. 전국시대에 열국이 분쟁하고 이단이 붕기하여 六經의 大旨가 밝혀지지 못했고 진대의 분서사건을 통해 전적이 대량으로 소실되어 聖人의 微言大義를 證實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대에 유학을 존송하였으나 학문이 오직 훈화와 章句일 뿐이었고, 魏晉代에는 노장학을 숭상하여 논저가 대부분 玄理를 말하는 것일 뿐이었다. 6조시대에는 문학이 성행하여 기미함을 좋아함이 聖道에 어그러졌고, 수당대에는 佛學이 흥기하여 空言을 좋아함이 聖道를 어지럽혔다. 한유가 처음으로 佛學을 배척하였고 이고가 뒤를 이어 佛學을 비난함으로서 단절상태에 직면한 聖道를 구하여 유학의 전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인 사조는 막을 수 없었고 더하여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점차 영향력이 사라졌으므로 그들이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없었다. 송대에 이르러 河圖洛書의 묘리를 연구하는 圖書之學과 丹田內의 정기를 수연한다는 內丹說이 성행하였다. 염계선생이 나타나서 공맹유가의 도통을 계승하고 노장학의 精華를 채택하여 그 장단점을 보충해서 태극도설을 지어 천리의 근원을 밝히고 만물의 終始를 궁구하였다. 언사는 간략하나 道體는 크고 문장은 질박하나 의리는 宏大하여 列聖의 宗傳과 우주원시의 깊은 뜻을 세상에 밝혀 명백히 드러나게 하였다. 이는 위로 洙泗學의 전통을 계승하고 아래로 정주학을 연 것으로 송명 양대의 유학은 대체로 그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II. 濂溪先生의生平 및 저작

선생의 자는 茂叔, 본명은 敦實이었으나 宋英宗의 舊名을 휘하여 實을 顒로 바꾸었다. 宋 도주 영도현 사람으로 대대로 濂溪가에 살았으므로 학자들이 葉계선생이라 높여 불렀다. 宋眞宗과 神宗 연간에 태어났으며 유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서 늘 高人·逸士들과 從游했으므로 道學과의 접촉이 매우 빨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 학문이 精明微密하여 초연히 天人性命 貞一의 때(際)를 자득하여 유가와 도가의 학문에 달통하였으므로 당시의 宿儒 碩彦들이 찬탄하고 경복치 않는 사람이 없었다. 程顥·程頤 두 형제도 수업한 바 있는데 선생은 늘 그들에게 「공자·안자 같은 성인이 무엇을 즐거워하였는가」는 명제를 풀게 하였다. 그러므로 정호가 말하기를

周茂叔을 두 번째 만난 때부터는 음풍농월을 하고 돌아와서도 「나는 曾點의 志趣에 찬동한다.(吾與點也)」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그의 인격과 사상이 후학에 영향을 끼침이 이와 같았다. 분녕주부, 남안군사리참사, 지남창군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攄名이 있었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였다. 神宗 6년 6월에 죽으니 향년 57세였다. 嘉定 13년에 元公이라 익호가 내렸고 淳佑 원년에 汝南伯에 봉해 졌으며 공묘에 배향되면서 道國公으로 개봉되었다. 明 가정 연간부터 釋尊時에 「先儒周子」로 불리어 졌다.

葉계는 일생을 통하여 명예의 추구에 담박했으나 志趣를 추구함을 즐거워했고 자신의 행복보다는 백성들의 복지에 힘썼으며 자기애를 초월한 인간애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 까지 미쳤으며 세속에 아부하지 않고 옛날의 현인들을 벗하고자 하였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嚴厲와 寬恕를 모두 도리에 맞게 하였고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은 誠一과 寡欲에 힘썼다. 인품의 숭고하기가 이와 같았으므로 黃山谷이 기리기를

「胸懷의 灑落함이 비갠 뒤의 햇살 들고 맑은 바람부는 아름다운 경치나 밝은 달(光風霽月)과 같다」고 했던 것이다. 저서로는 太極圖說, 通書四十一章, 雜書二卷, 諸儒議論 및 誌傳五卷이 있으며 그의 사상은 太極圖說과 通書四十一章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Ⅲ. 太極圖의 원류에 대하여

청대의 학자 胡渭(호는 拙明)는 所著 易圖明辨의 題辭에서 이르기를,

옛날에는 글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이 있었다. 그림은 글씨가 가진 표현력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천문·지리·새·짐승·풀·나무·집·수레·깃발·옷·장신구·그릇·世代相承의 차례, 여러 신하들이 늘어서는 위치 등은 그림이 아니고서는 그윽하고 깊은 형태와 고금의 제도를 분명히 알려 줄 방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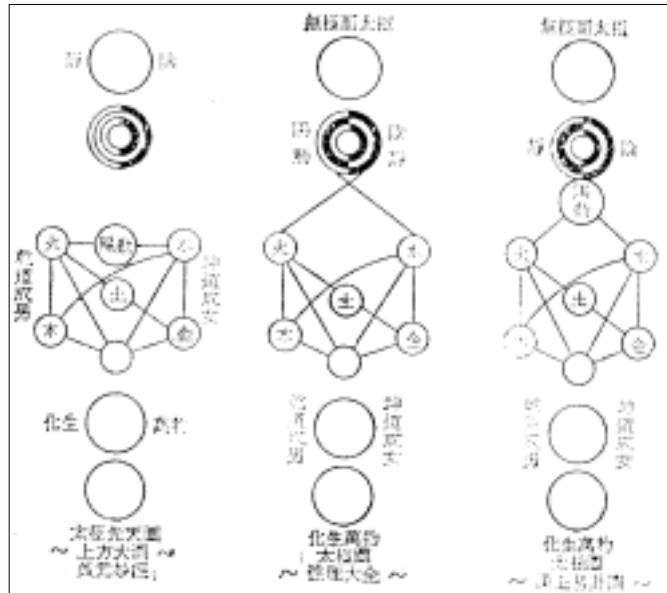
고 했다. 그러므로 河圖가 나오기 부터 인간의 문화가 시작되었고 八卦가 그려지고 부터 주역의 도리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림의 기능이 크다고 하겠다. 주렴계의 태극도는 도교의 無極圖에 근거하여 개작한 것이다. 黃宗炎(자는 晦木)은 太極圖辨에서 말하기를,

周子の 太極圖는 河上公이 처음 그린 것으로 다름아닌 方士들이 수련하는 방법인 것이다. ……河上公이 그린 것의 본명은 無極圖였는데 魏伯陽이 전수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參同契를 지었고 鍾離權이 이를 얻어 呂洞賓에게 전했으며 여동빈은 뒤에 陣圖南과 함께 華山에 은거하였는데, 진도남이 華山의 석벽에 이를 새겼다. 진도남은 또 麻衣道者로부터 先王圖를 얻어 이를 모두 鍾放에게 전했다. 종방은 이를 穆脩와 중 濤涯에게 전했으며 목수는 先天圖를 李挺之에게 전했고 이정지는 이를 昭天與에게 전했다. 天與는 아들 堯夫에게 전했으며 목수는 無極圖를 周子에게 전했다.

고 했다. 朱彝極尊의 「太極圖授受考」에 또한 이르기를

한대로부터 여러 유학자들이 주역을 논함에 있어 태극도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道家者流가 上方大洞眞元妙經에서 太極, 三五之說을 제출하였다. 唐 開元 연간에 玄宗이 御製序를 쓰고 東蜀사람 衛琪가 주를 단 玉清無極洞仙經에 無極, 太極 등의 그림이 增益되어 있었다. 살피건대 陳子昂의 感遇詩에 이르기를, 「太極의 妙理가 밝혀지니 三元의 奧理가 문혔다 다시 일어나네. 지극한 이치가 진실로 이에 있으니 三五의 이치를 누구 證實할 수 있으리,(太極生天地 三五更廢興 至精諒欺在 三五誰能徵)」라 했다. 三元은 律曆志의 陰陽至精의 數에 三五는 魏伯陽의 參同契에 각각 바탕을 두었다. 요는 태극도설은 당대의 군신들이 이미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陳博(자는 圖南)이 華山에 살면서 일찍이 無極圖를 돌에 새겼는데 네 개의 원(圓)과 五行이 이것이다. 이를 아래로부터 첫 번째의 것을 玄牝之門이라 하고 두 번째 것을 煉精化氣, 煉氣化神이라 하고 세 번째 것을 五行定位, 五氣朝元이라 하고 네 번째 것을 陰陽配合, 取坎填離라 하고 맨 위의 것을 煉神還虛, 復歸無極이라 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太極圖라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方士들이 수련하는 방법일 뿐이다. 전해오는 말로는, 陳博이 이를 呂岳에게서 얻었고 여암은 이를 鍾離權에게서 얻었다 하고 宗理권은 그 설을 魏伯陽에게서 들었으며 위백양은 그 뜻을 河上公에게서 들었다고 하는데 道家들은 늘 이것을 千聖不傳의 秘寶라 자랑하였던 것이다. 元公(周濂溪)이 이를 취해 수정하였는데 역시 네 개의 원과 五行으로 하였다. 이를 위로부터 설명하여 맨처음의 것을 無極而太極이라 하고 두 번째 것인 음양의 배합을 陽動陰靜이라 했고 세 번째의 五行定位를 五行各一其性이라 했고 네 번째의 것을 乾道成男, 坤道成女라 했고 맨 나중의 것을 化生萬物이라 하였으며 명칭을 바꾸어 태극도라 하였는데 여전히 無極圖의 原旨를 매몰치는 않았다.

고 말했다. 필자가 살펴보니 道藏上方大洞眞元妙經品에 太極先天圖가 있고, 性理大全 및 朱震의 漢上易卦圖에 모두 周子의 太極圖가 실려 있다. 그러나 서로 약간씩 그 형태가 다르다.



위의 세 도표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약간씩은 다르다. 첫 번째의 도표는 비교적 간략한데 뒤의 두 도표는 복잡하며 세밀하다. 周子の 太極圖는 아마 맨 앞의 것을 따른 듯하다.

性理大全과 漢上易卦에 실려 있는 태극도에 있어 어느 것이 먼저 그려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前賢들간에 이미 논변이 있었다. 胡渭는 易圖明辨에서

唐貞元妙經品에 太極先天圖가 있는데 三輪과 五行을 합하여 하나로 하였으며 三輪 中의 원[○] 하나와 五行 아래의 원 하나를 太極이라 하였다. 또 陰靜陽動과 男女萬物之象을 더하니 모두 네 개의 큰 원[○]이다. 陰靜이 三輪의 위에 있고 陽動이 三輪의 아래에 있다. 男女萬物을 모두 五行의 아래에 그린 것이 宋 高宗 紹興甲寅年에 朱震이 바친 周子 太極圖와 꼭 같다. 지금 性理大全에 실린 것은 三輪의 왼쪽을 陽動, 오

른쪽을 陰靜이라 하고 그 아래 위의 두 원[○]을 비워서 太極으로 하였는데 후인들의 개작이지 옛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淸儒 張惠言도 이 설을 주장하였다. 호위가 주진의 漢上易卦圖에 실린 태극도와 唐眞元妙經品에 실린 것이 꼭 같다고 한 말을 道藏을 증거로하여 살펴보면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두 번째의 三輪의 형태가 다르다. 둘째, 네 번째 원의 설명에 있어 眞元妙經品은 萬物化生이라 하였고 漢上易卦圖는 乾道成男, 坤道成女라 했으니 이것이 또 다르다. 셋째, 맨 아래 그림에 있어 眞元妙經品에는 설명이 없는데 漢上易卦圖에는 萬物化生이라 했으니 이것도 다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다른 것이 있는 이상 꼭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性理大全에 실린 태극도가 비록 주자태극도설과 사상이 부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바가 없기는 하나 형태의 모식으로 본다면 性理大全에 실린 것이 漢上易卦圖에 실린 것보다 더 명확하다고 하겠다.

周子の 태극도는 이미 위로 당대 道藏의 太極先天圖를 계승했으나 또 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대에 이르기까지 맥락이 닿는다. 청 毛奇齡의 太極圖遺議에 이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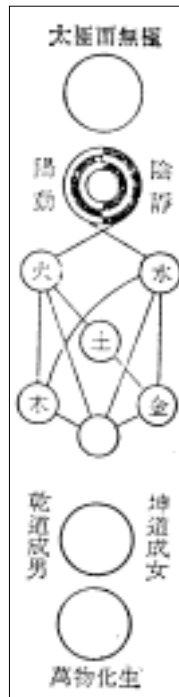
參同契의 여러 그림들에 水火匡廓圖, 三五至精圖가 있는데, 바로 濂溪 太極圖의 第二, 第三圖가 이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 한다.

고 했다. 참동계는 漢代人 위백양이 지은 것인데 황회목과 주이존 등이 쓴 太極圖授受 가운데 「伯陽이 이를 얻어서 참동계를 지었다», 「三五는 위백양의 참동계에서 나왔다」는 구절이 있으니 또한 이 그림이 도교에 원래 있던 것으로 水火匡廓圖, 三五至精圖에 의거하여 차츰 增益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한다. 周子도 이를 바탕으로 유가사상으로 설명하여 그의 천인합일의 사상체계를 세웠던 것이다. 이것이 周子 太極圖說의 연원이다.

IV. 太極圖와 無極圖의 相異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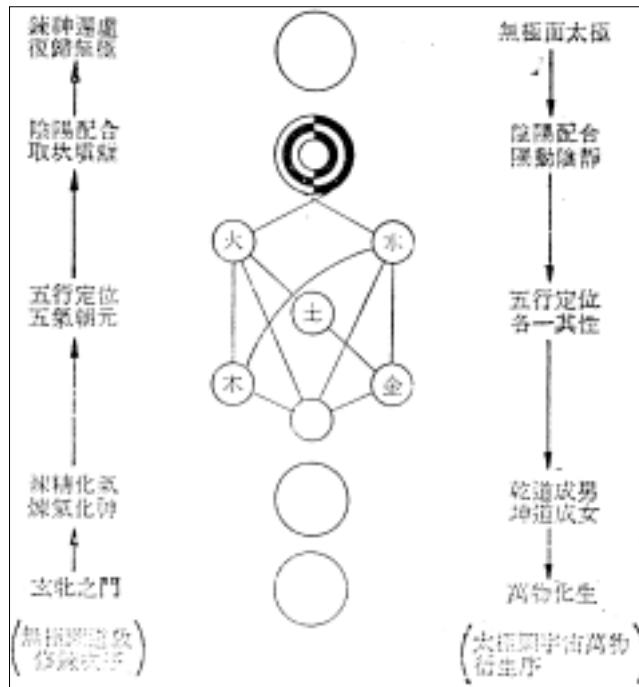
이어 周子의 태극도설이 도교의 무극도로써 그 차례를 바꾸고 이름을 고쳐서 체계화한 것임을 안 이상, 두 가지의 상이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극도는 네 개의 원과 五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로부터 위의 차례로 처음의 것이 玄牝之門, 두 번째가 煉精化氣, 煉氣化神, 세 번째가 五行定位로서 五氣朝元이라 하고, 네 번째가 陰陽配合으로서 取坎填離라 하고 맨위의 것을 煉神還虛, 復歸無極이라 하였는데 周子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친 것도 역시 네 개의 원과 五行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위로부터 아래로 살펴보면 맨 위의 것이 무극태극, 두번째 것이 음양 배합으로 음동양정이라 하고, 세 번째의 것이 오행정위로써 오행이 각각 하나씩 구성되어 있고 네번째의 것을 건도성남, 곤도성녀라 하였으며 맨 아래의 것을 화생만물이라 하였다. 이에 도식을 나열하여 그 상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두 그림을 보면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부연되어 있고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소급되어 있다. 운용의 차례에 있어 근본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림의 두번째 층에 흑백의 반쪽 고리가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이 바로 참동계의 水火匡廓圖이다. 水·火는 바로 坎과 離이다. 道士들의 煉丹에는 물과 불이 필수인 매개가 되므로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오른

쪽의 흑·백·흑·세 개의 반쪽 고리는 음·양·음의 坎卦(☵)를 상징하고 오른쪽의 백·흑·백 세 개의 반쪽고리는 양·음·양의 離卦(☲)를 상징한다. 아마도 二卦의 교착이 兩儀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태극도에서 말하는 陽動生陰, 陰動陽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것 또한 두 그림의 근본적인 함의에 있어서의 현저히 다른 것이다.

그림의 세번째 층은 바로 참동계의 三五至精圖이다. 三五라는 것은 가운데의 土가 五이며, 왼쪽의 火와 木이 합하여 五이며 오른쪽의 水와 金이 합하여 五인 것이다. (五行의 數는 一水, 二火, 三木, 四金, 五土이다.) 三五가 교착하여 一元으로 귀착하므로 三五至精이라 하는 것이다. 周子の 태극도는 이 뜻이 아니라 三五를 二五로 고쳤다. 그는 음과 양이며 五는 五行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易理를 설명하였으니 도교의 설과는 아예 다른 것이다. 이것도 두 도식의 함의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극도는 道士들의 內丹修煉에 사용되는 도식으로 그 자체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周子の 태극도는 그 차례를 바꾸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양자는 형태에 있어 거의 같다고는 하지만 취지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것이다.

V. 太極圖說 思想 蠡探

태극도설은 周子が 도교의 內丹修煉에 있어 바탕으로 하는 無極圖를 그 차례를 바꾸고 이름을 고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고 특별히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여 이룩한 본체론이자 우주론인 동시에 인생론이다. 全文은 249자이다. 이에 宋元學案에 실려있는 태극도설을 아래에 수록한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行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窮焉. 惟人也, 得其秀而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而善惡分, 萬事出矣. 聖人最靈.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者, 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生死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무극이 태극이다. 태극이 動하여 陽이 낳으며 動이 극하면 靜하게 되고 靜하여 陰을 낳으며 靜이 극하면 다시 動이 된다. 一動과 一靜은 서로가 뿌리가 된다. 陰과 陽으로 나누어지면 兩儀가 立한다. 양음이 변화 묘합하여 水火木金土의 오행을 낳으며 五氣가 고르게 분포되면 四時의 운행이 그치지 않는다. 五行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은 무극이다. 오행은 생성에 있어 각각 그 속성을 가진다. 무극의 眞과 음양오행의 微妙精粹함이 묘합하여 유형의 물체를 만든다. 陽建한 것은 남자와 수컷이 되며, 陰順한 것은 여자와 암컷이 된다. 음양이 교감하여 만물을 化生하며, 만물은 生生不息하여 변화가 끝이 없다. 오직 사람만이 음양 오행의 빼어난 것을 얻어 만물 중에서 가장 靈하다. 형체가 이미 생겼으면 심신 또한 지각과 지식의 작용을 발출한다. 오행의 性이 物과의 접촉으로 動하면 善·惡으로 나누어지며 세상 만사가 끝없이 발생한다. (이에) 聖인이 中正과 仁義로서 만사를 바로 잡고 靜을 主(主靜 : 動의 반대어가 아니다. 역주)로 하여 인간 도덕실천의 최고 준칙을 세웠다. 그러므로 聖인은 그 덕이 천지와 부합하며 日月의 밝음과 부합하며 四時의 운행과 부합하며 鬼神이 길흉에 감응함과 부합하는 것이다. 군자는 人道를 닦으므로 吉하고 소인은 인도를 거스르므로 凶하다. 그러므로 주역에 이르기를 立天의 道를 陰과 陽이라 한다. 立地의 道를 柔와 剛이라 하며 立人의 道를 仁과 義라 한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사물의 시초를 궁구하고 사물의 종결을 추구하므로 생사의 數를 안다고 했다. 위대하도다. 易은 이것이 그 지극한 것이로다.

圖說의 全文은 언사는 간략하나 내용은 풍부하다. 도설이 포함하고 있는 至理를 만약 通書에서 말한 바에 의거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

람마다 자기의 설이 있어 쉽게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朱子와 陸象山의 圖說之辨이나 鵝湖之爭은 바로 그 드러난 예이다. 이 글을 세밀히 살펴보면 思路와 語脈을 물론하고 모두 통서와 같다. 다른 점이라면 오직 통서에 「無極」 및 「太極動而生陽」 등의 글자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없다」는 것은 문자표기상 없다는 것에 속하며 義理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로 관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통서 가운데서 우주만물 근원의 大旨를 밝혀 논한 것으로서 태극도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다.

誠上 제1장

誠은 聖人の 本이다. 「위대하도다 乾元은, 만물이 의지하여 產生된다.」 이가 誠의 源이다. 「乾道가 변화하여 각각 性命을 바르게 한다.」 誠이 이에 확립된다. 誠은 순수지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一陽과 一陰을 道라고 한다.

誠下 제2장

……誠은, ……고요할 때는 작용이 없으나 움직일 때 작용이 있다.

思 제9장

……無思는 誠의 本이며 思通은 誠의 用이다. 幾가 無思에서 動하고, 誠이 思通에서 動한다. 無思하면서 通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聖人이다.

順化 제11장

하늘이 陽으로써 만물을 낳고, 陰으로써 만물을 이룬다. 生은 仁이며 成은 義이다. 그러므로 聖인이 위에 있으면서 仁으로 만물을 기르고 義로 萬民을 바룬다.……

動靜 제16장

動하면 靜함이 없고 靜하면 動함이 없는 것이 物이다. 動하면서 無動하고 靜하면서 無靜한 것은 不動, 不靜은 아니다. ……水가 陰이나 根은 陽이며 火가 陽이나 根은 陰이다. 五行은 陰陽이며 陰陽은 太極이다. 四時가 운행되어 만물이 생멸한다. 닫히고 열림이여 그 끝이 없음이여.

理性命 제22장

그 창현함과 은미함은 至靈의 心이 없으면 밝히지 못한다.…… 二氣와 五行이 萬物을 化生한다. 五行의 다름(殊)은 陰陽 二氣의 변화이며 二氣의 本은 太極이다. 음양오행에서 化生된 만물은 근원이 하나이며 一

은 만물의 體로서 만물로 나누어 진다. 만물의 개체가 각각 그 性命을 얻고 크고 작음이 정해진다.

위에 서술한 바에 의하면 통서에서 말하는 誠의 源은 乾元이며 만물이 의지해서 產生하는 것으로, 圖說에서 태극을 만물이 생기는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과 꼭 같으며 또한 바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까닭이다. 誠이 乾道의 변화 가운데서 성립하여 만물로 하여금 음양오행에 따라 화생케 하여 각기 그 성명을 바룬다는 것은, 圖說에서 이른바 무극의 眞과 음양오행의 微妙精粹함이 묘합하여 유형의 물체를 만듦으로써 만물의 생생무궁함을 나타낸다는 것과 꼭 같다. 이것은 바로 一實이 萬分이 된다는 것이다.

통서에서 말하는 「誠이 聖인의 本이 된다」는 것은, 도설에서 말하는 「인생이 태극에 근본하여 인간행위의 표준이 성립하는 까닭이 된다」는 것과 꼭 같다.

통서에서 말하는, 誠이 寂然不動과 無思를 本으로 하고 감응하여 통하는 神 혹은 思를 用으로 하며 幾로써 그 動하나 未形하는 有, 無의 사이를 말하고 아울러 彰顯하면서 隱微하고 幽渺하면서 明亮한 것을 用으로 한 것은 어구가 도설에서 말하는 「무극이 태극이다」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圖說에서 말하는 「靜이 極하면 다시 動이 되고 靜이면서 無靜하여 一動과 一靜함이 서로 그 根이 된다」고 한 것은, 통서에서 말하는 「不動, 不靜은 아니다」는 말 또는 「動하면서 無動하고 靜하면서 無靜하다」는 문구와 대략 같으며 서로 바탕이 되어 촉발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통서에 의거하여 도설을 풀이하면 靜이 극하여 動이 된다는 것은 바로 靜而無靜하는 까닭을 나타내며, 動이 극하여 다시 靜이 된다는 것은 바로 動이 無動하는 까닭을 나타내는 것이다.

靜과 動은 陰과 陽으로 나누어진다. 음양이 서로 根이 되는 까닭도 바로 靜이 스스로 靜을 가지지 못하여 無靜하는 것과, 動이 스스로 動을 가지지 못하여 無動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靜하면서 無靜하고 動하

면서 無動한 것을 통서에서는 다시 이름하여 神이라 했다.

神이라는 명칭이 도설에는 없으며 도설의 무극이 태극이라는 것은 바로 이 誠이 神으로써 用을 삼는다는 것으로서 태극의 함의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서의 사상으로 태극도설을 풀이해서 빈객, 주인이 서로 보좌가 되어야 周子の 본의를 잃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異說이 紛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도설의 내용을 다섯 가지의 경계로 분석하여 그 사상의 의거 및 본말을 살핌으로써 周子학설의 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 「極而太極」

이 한 귀절만으로도 周子の 본체론은 이미 자연스럽게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無極而太極」이란, 태극 위에 달리 무극이 있음이 아니다. 朱子가 「答象山辨太極圖說第一書」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道의 지극을 태극이라 하고 태극의 유행을 道라고 합니다. 비록 두 명칭이 있으나 애초부터 兩體가 아닙니다. 周子께서 무극이라한 까닭은 바로 그것이 고정된 곳(方所)도 형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物이 생기기 전에 있으면서도 物이 생긴 뒤에 있지 않은 적이 없고, 음양의 밖에 있으면서도 음양의 가운데서 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전체를 관용하여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니 또한 태극이 애초부터 소리도 냄새도 그림자도 울림도 없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 했다. 지극한 道로서 태극을 보면 자연히 고정된 곳도 형상도 없는 것이다. 무극을 말하면서 「비록 두 명칭이 있으나 애초부터 兩體가 아니라」한 朱子의 말이 매우 옳은 것은 원래 태극 위에 달리 무극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形而上을 道라 하고 形而下를 器라 한다. 形上은 道, 태극이 되는 바로 절대적인 理이며, 形下는 器, 현상이 되는 바로 感官인 實이다. 形而感官의 實으로써 形上絶對의 理를 해석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태극이 이미 형상절대의 至理라면 그것은 반드시 소리, 냄새, 고정된 곳, 형체 등이 없는 본질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形下感官의 소유로 떨어져서 절대, 지극의 道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위에 반드시 무극을 표시해야만 유일무이한 道體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다시 「誠의 근원이 도설의 태극과 꼭 같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통서의 「誠은 고요할 때는 작용이 없으나 움직일 때 작용이 있다.」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誠이다.」는 말은 바로 無思, 無爲, 寂然不動으로써 誠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의 本은 마땅히 無로 설명해야 한다. 無로써 설명하여 무극을 표출하는 것은 道體의 超越意를 더욱 밝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태극을 말하면 이 道體의 실체성을 가중하며, 무극을 말하면 이 道體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태극은 實體詞에 속하고 無極은 狀詞에 속하며 태극의 극은 「무한정의 極」에 속하고 무극의 극은 바로 「한정의 極」이다.

이처럼 태극과 무극은 하나이지 둘이 아닌 것으로 태극을 말하면 무극이 이에 포함되고 무극을 말하면 태극 역시 없는 곳이 없으며 태극위에 달리 무극이 있음이 아닌 것이다.

(2)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動極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性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此段은 우주만물의 생성변화 과정을 말한 것으로 바로 周子の 우주론이다. 「太極動而生陽」으로부터 「五氣順布, 四時行焉.」까지는 위에서 아래로의 연역적인 발전이며, 「五行一陰陽也」부터 「太極本無極也」까지는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오르는 귀납적인 程序이다. 이러한 上下互言이야말로 만물생성의 妙를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태극이 형이상의 道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만약 움직이면 형이하로 떨어지고 마니 어찌 모순이 아닐 수 있는가. 그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통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通書 動靜 제16장에 이르기를,

動而無靜, 靜而無動, 物也. 動而無動, 靜而無靜, 神也. 動而無動, 靜而無靜, 非不動不靜也.

라 하였다. 태극이 動하여 陽의 動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誠體의 動而無動的 動이며, 靜하여 陰의 靜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誠體의 靜而無靜의 靜이다. 이 양자는 모두 神이라 한다.

動하나 無動하다는 것은 誠體의 動하나 動相이 없다는 말이며, 靜하나 無靜하다는 것은 誠體의 靜하는 靜相이 없다는 것이다. 誠體의 動하나 無動하다는 것은 한 번 動相을 드러내면 이것이 바로 動인 것으로 이 動은 이미 定動이 된 것이며, 誠體가 靜하나 無靜하다는 것은 한 번 靜相을 드러내면 이것이 바로 靜인 것으로 이 靜은 이미 定靜이 된 것이다. 이 定動 定靜은 모두가 氣變의 일이며 神變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극이 動하여 陽의 動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氣의 動을 뜻하는 것이지 道의 動이 아니다. 그것이 氣의 動이지 道의 動이 아니기 때문에 태극이 形上의 道가 된다는 뜻에는 모순이 없다.

動하여 陽을 낳는다는 것은 한 번 動相을 드러내기만 하면 이것이 陽이라는 뜻이며, 靜하여 陰을 낳는다는 것은 한 번 靜相을 드러내기만 하면 이것이 陰이라는 뜻으로 이 陰陽은 모두 氣이다. 그러면 誠體(太極)은 무엇에 인연하여 動相과 靜相을 나타내는가? 답은 아래와 같다.

「誠體의 神이, 形迹이 꼭 動해야 할 때를 따라 動相을 나타내고, 역시 형적이 꼭 靜해야 할 때를 따라 靜相을 나타낸다. 誠體가 형적 가운데서 妙用되어 動하면서 無動한 것과 靜하면서 無靜한 것을 따라 음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음양은 태극에 근본하고 迹相에 인연하여 생긴다.」

「動極而靜」,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의 세 마디는 곧 動靜에 간극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며, 또한 바로 통서의 「水가 陰이나 根은 陽이며, 火가 陽이나 根은 陽이다.」라는 뜻이다. 動靜에 간극이 없다는 말을 朱子가 적절히 풀이하였다.

一動과 一靜은 끝없이 순환한다. 비유하면 숨을 쉴 때 늘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하는 것과 같다. 내쉬고 나면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나면 내쉬게 되는데 이치가 본래 이와 같다.

그 動靜이 간극이 없기 때문에 陰이 끝나면 다시 陽이 되고 陽이 끝나면 다시 陰이 되며 道는 바로 이 음양의 氣가 動靜에 있어 간극이 없음을 빌어(藉) 나타나는 것으로 정태적인 면에서 一陽一陰이 서로 합하면 바로 道라는 것은 아니다.

「分陰分陽」에 대해 朱子는, 음양은 유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定位)도 있다. 「一動과 一靜은 서로가 뿌리가 된다.」는 것이 유행하는 것이며 寒暑의 왕래가 이것이다. 「음양으로 나누어지면 천지가 성립된다.」는 것이 定位하는 것이며 천지사방이 이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행은 바로 음양의 氣가 動靜에 있어서 간극이 없다는 것이며 定位는 곧 음양이 相感, 相對한다는 뜻이다. 이에 인하여 춘하추동이 쉽없이 순환하고 천지사방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 두 뜻을 아울러 포괄하면 相對 相感하여 쉽없이 생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이르기를 「음양이 變合하여 水火金木土를 낳는다.」고 한 것이다. 水, 火, 木, 金, 土는 오행이다. 도식에 의거하여 살펴면 陽動이 왼쪽에서 變을 주관하고 陰靜이 오른쪽에서 숨을 주관하며 一變一合하여 오행이 생기는 것이다. 火는 태양이며 木은 소양이다. 그러므로 陽動과 함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水는 태음이며 金은 소음이다. 그러므로 陰靜과 함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土는 음양변합의 접촉점(際)

이다. 그러므로 중앙에 위치한다. 水가 木을 낳고 木이 火를 낳고 火가 土를 낳고 土가 金을 낳고, 金이 다시 水를 낳는다. 이것이 오행의 相生이며 五氣의 順布이다. 木은 봄에 水는 여름에 金은 가을에 火는 겨울에 왕성하며, 土는 사계에 걸쳐 왕성하다. 이것이 「五氣가 고르게 분포되면 四時의 운행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록 이를 나누면 다섯이긴 하나 이를 합하면 둘이 있는 적이 없다. 木, 火는 一原으로 乾道에서 행해지며 양에 속한다. 金, 水는 同宮으로 坤道에서 행해지며 음에 속하며 土는 중앙에서 행해지며 木, 火, 金, 水에 응한다. 그러므로 오행은 비록 다르나(殊), 사실은 하나의 음양이다. 음 가운데 양이 있고 陽가운데 陰이 있어 음양의 樞紐가 혼연히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라 하는 것이다. 태극은 음양에서 떨어져 있지도 섞여 있지도 않은 변화막측하며 고정된 곳도 구체적인 형체도 없다. 이것이 「太極本無極也」의 뜻이다.

음양오행은 만물을 化生하는 것이다. 만물은 반드시 음양오행의 전체를 얻은 다음에야 생성한다. 오행의 생성에 있어 수성은 寒하고 화성은 燥하며 금성은 剛하고 목성은 柔하며 토성은 實하여 각각 오행의 일부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오행은 만물의 생성에 있어 각각 그 속성을 가진다. (五行之生也, 各一其性)」고 하는 것이다. 무극의 眞이란 바로 理를 두고 하는 말이며, 二五의 精이란 바로 氣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무극과 음양오행은 혼용하여 간극이 없으며 묘합하여 유형의 형체를 만드는데 이 氣의 모임(聚)에 인하여 형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생물의 生은 반드시 이 理를 얻은 다음에야 健順, 仁義, 禮智의 性이 있으며 이 氣를 얻은 다음에야 魄魄, 王藏, 四肢를 갖춘 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도에서 얻으면 남자와 수컷이 되며 곤도에서 얻으면 여자와 암컷이 된다.

「理氣가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한다.」는 것은 「음양오행이 만물을 화생한다.」는 말이다. 「만물이 생생불식하여 변화가 끝이 없다.」는 것은 만물이 만물을 낳는다는 말이며 또한 바로 음양오행이 만물을 낳는다는

뜻이다. 음양오행으로써 만물을 낳는 것은 바로 음양과 습德하며 치우치지도 기대지도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으며 지당하고 적당하여 포함하지 않음이 없는 태극이다.

이상은 바로 周子의 우주론이다. 이러한 形上철학이 만약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장차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공언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周子는 이어서 자신의 인생론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3)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而善惡分, 萬事出矣.」

이 일단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형체가 이미 생겼다」는 것은 氣를 두고 하는 말이며, 「心神이 지각과 지식의 작용을 발출한다」는 것은 誠體인 태극을 두고 하는 말로서 인간은 다만 氣를 갖추고 형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심신을 갖추어 지각 지식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인간이 태극의 잠재성과 실천성을 받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물과 다르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까닭은 인간이 이 잠재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태극의 誠體를 실천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빼어난 것을 얻어 만물 가운데서 가장 靈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비록 태극의 도를 갖추었으나 오히려 기질과 성품의 치우침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五性이 감동함을 통해 선악의 구분이 있는 것이다. 이 선악의 구분에는 幾가 그 관건이 된다. 통서 誠幾德第三章에 이르기를 「幾·善·惡」이라고 했고, 聖第4章에 이르기를 「움직이면서도 형체가 없이 有와 無의 사이에 있는 것이 幾이다」라 하였다. 幾의 動으로부터 形이 있고 선악을 낳게 된다. 性命의 바른 것에 순응하는 것이 선이 되고 形氣의 私에 치우치는 것이 악이 된다. 선악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吉, 凶, 悔, 吝 같은 모든 일이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4)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焉。故聖人者，與天地合其德，日月合其明，四時合其序鬼神合其吉凶，君子修之吉，小人悖之凶。」

인간은 타고난 기질과 성품의 치우침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五性이 사물과 접촉하여 동하면 선악이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인간도덕 실천의 최고 준칙이 서지 않으면 금수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法天의 학을 제시하고, 中正, 仁義의 도로써 바로 잡되 靜을 위주(主靜)로 하였다.

중정, 인의라는 것은 통서 道第6章에서 말하는 「성인의 도는 中正仁義일 뿐이다.」는 것이다. 主靜이란 통서 聖學第20章에서 말하는 「無欲하면 靜虛, 動直해진다. 靜虛하면 明해지고, 明해지면 通한다. 動直하면 公해지고, 公하면 溥해진다. 明, 通, 公, 溥의 경지에 이르면 罔간하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仁, 中, 木, 火의 性, 태극의 左陽은 인간이 만물을 생장케 하는 것이며 義, 正, 金, 水의 性, 태극의 右陰은 인간이 만물을 收藏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비와 然否를 변별할 수 있는 것은 靜이다.(靜虛하면 明해진다고 했다.) 이 마음이 담연하면 만물이 다 갖추어진다. 合理와 규범도 마땅히 여기에서 구해야 한다.(動直하면 公해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主靜한 다음에야 人極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또 성인은 태극의 도를 체득한 사람이므로 천지의 덕이 성인의 덕이며 천지의 明이 성인의 명이요, 천지의 운행변화가 성인의 운행변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덕이 천지와 부합하고 일월의 밝음과 부합하며 사시의 운행과 부합하고 귀신이 길흉에 감응함과 부합하는 것이다. 성인은 그대로 천지의 功用과 일체이다. 군자는 主靜의 공부를 통해 이 천도를 닦으므로 길을 얻고, 소인은 妄動하여 이 천도를 거스르므로 흉해진다. 이것은 천도를 닦고 닦지 않음이 吉, 凶, 군자, 소인으로 나누이는 관건이 됨을 더욱 분명히하는 것이다.

(5) 「故曰：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

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生死之說. 大哉易也, 斯其至也。」

이 일단은 전문을 총괄하여 易道の 위대함에 귀결하고 있다. 天의 象은 음양이요 地의 性은 剛柔이며 인간의 덕은 仁義이다. 천, 지, 인은 三才의 道이다. 이를 나누면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추며 합치면 함께 하나의 태극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立天의 도를 음양이라 하고 立地의 도를 강유라 하며 立人의 도를 인의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누면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춘다는 뜻이다. 또 始는 生이다. 그러므로 仁은 生을 주재하는 것이다. 終은 死이다. 그러므로 義는 殺을 주재하는 것이다.

사물의 시초를 궁구하면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를 알게 되고, 사물의 종결을 추구하면 만물이 죽는 까닭을 알게 된다. 原始反終하여 나고 죽음이 쉽없이 순환하는 것, 이것이 易이며 三才의 道가 성립한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합치면 함께 하나의 태극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易道는 이에 이르러 위대하고 完善하며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것이다.

태극도설은 비록 겨우 249자에 지나지 않으나 우주만물의 衍化歷程은 이미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더하여 중정, 인의와 주정을 제창하고 이로써 인간도덕실천의 최고준칙을 세웠으며, 본체계로부터 구체적으로 인생계에 呈現되며 다시 인생계로부터 위로 본체계를 관통함으로써 천일합일의 사상체계를 건립하였다. 그 설은 본체와 현실의 일체를 포함하고 못 지혜를 결합하며 논지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규모가 크며 사려는 정밀하다. 宋, 明 兩代의 휘황찬란한 理學은 이 설이 나옴으로 해서 그 방향을 확정했던 것이며 또한 이 설이 나옴으로 해서 도가의 精體를 유가사상 속에 溶化하여 蔚然히 송명 理學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VI. 朱子와 退溪의 太極論에 있어서의 차이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朱子가 「太極圖說解」를 쓰고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朱子가 말하는 태극은 도리어 염계의 본 뜻과 차이가 있다.

통서 誠上第1章의 「一陰一陽之謂道」 1구에 대한 朱子의 주는, 「이 역시 주역의 한 구절이다. 음양은 氣다. 氣는 形而下者이다. 일음, 일양케 하는 것은 理이다. 理는 形而上者이다.」라 했다. 또 「太極動而生陽」을 주하여 「그 隨微한 것으로부터 보면 沖虛恬漠하여 형상이 없으나 음양 동정의 理가 이미 그 가운데 다 구비되어 있다.」고 했다.

이 두 가지의 주로서 보면 朱子가 領悟한 태극은 다만 음양2기가 음양이게 하는 원인(所以然)일 뿐이다. 그리고 이 소이연은 오직 一理이며 그 가운데는 心神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心, 神은 모두 아래로 떨어져 氣가 되어 理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朱子의 理에 대한 깨달음은 「다만 존재하면서, 활동은 않는다.(只存有而不活動)」는 것이다. 理가 「다만 존재하나 활동은 않기」 때문에 태극은 동정을 포함하지 않고 다만 동정의 理만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다면 태극은 겨우 동정의 理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정 자체는 포함하지 않으며, 「태극의 動而生陽」의 설은 해석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나 朱子는 이 뜻을 설명하여 「이 動은 바로 氣의 動이며 氣의 動에 의탁하여 태극의 動을 말할 수 있다. 氣에는 動과 靜이 있고 태극은 氣에 깃들여(寓)있다.」고 하였다.

주자어류 권94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제자가)묻기를, (周子 太極圖說의) 「動而生陽, 靜而生陰」을 선생님께서 주해하시기를, 「태극은 本然之妙이며 動靜은 所乘之氣」라 하셨습니다. 태극이 다만 理일 뿐이라면 동정으로써 理를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동하여 양을 낳으며, 정하여 음을 낳는다.(動而生陽, 靜而生陰)면 理가 氣에 깃들여 있어 동정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 「소승지기」의 「승」은 「타고(乘), 싣는다(載)」고 말할 때의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 동정이란 것은 氣의 위에 타고 있어서 저절로 動이 다하여 靜하며 정이 다하

여 다시 動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朱子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제자가 서술한 말을 주자가 인정한 데서 주자가 깨달은 태극은 다만 하나의 理일 뿐이며 本身은 동정이 없는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퇴계가 말하는 태극은 이렇지 않다. 퇴계는 李達(자 天機)에게 답한 편지에서,

태극에 동정이 있는 것은, 태극이 스스로 동정하기 때문이다. 天命이 유행한다 함은 천명이 스스로 유행하기 때문이다. 어찌 그렇게 되도록 시키는 것이 또 있을 것인가?

라 말했다. 퇴계가 말하는 태극은 朱子가 말하는 자체에 동정이 없는 태극이 아니다. 퇴계는 이 스스로 동정하는 태극에 바탕하고 또 주자의 「無情意, 無計度, 無造作」의 理에 근거하여 「答奇明彥別紙」와 「答鄭子中別紙」 가운데서 그 뜻을引申하기를,

情意와 조작이 없는 것, 이것이 理의 본연지체이다. 그것이 만물에 두루 퍼져 있어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 이것이 理의 지극히 신령스러운 작용이다.

라 했다. 또 말하기를

理가 동하면 氣는 理에 따라 생기며, 氣가 동하면 理는 따라서 드러난다. 염계가 이르기를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理가 동하여 생긴다는 것을 말함이다. 주역에 이르기 「다시 천지의 자연상태를 본다(復其見天地之心)」고 했는데 이는 氣가 동하여 理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룸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자연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조화에 속하며 일치하는 것이다.

라 했다. 이것이 퇴계가 깨달은 理로, 體用이 합일하여 理가 동하면 氣가 생기고 氣가 동하면 理가 드러나는 理이다. 이것은 염계가 말한 태극의 原旨과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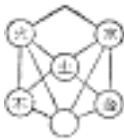
周子가 말한 「太極動而生陽」의 태극은 동정으로써 말할 수 있다. 태극의 動은 「動而無動」의 動이며, 태극의 靜은 「靜而無靜」의 靜이다. 또한 바로 태극이 物에 따라 감응하는 가운데 形跡이 마땅히 動해야 할 때를 따라 動相이 드러난다. 「靜而生陰」도 역시 그러하다. 形跡이 마땅히 靜해야 할 때를 따라 靜相이 드러난다. 이러한 태극의 동정에 대한 이해는 「활동 本身이 바로 존재이다.」는 명제에 대한 이해이며 퇴계의 설은 이와 서로 부합되나, 朱子의 설은 그 취지가 크게 다르다.

퇴계의 학문은 비록 朱子를 바탕으로 했지만 태극에 대한 깨달음은 실로 주자를 초월하는 바가 있다. 앞시대의 朱子는 태극에 대한 이해가 세밀하지 못했지만 뒤에 나온 퇴계는 정확히 이해했던 것이다. 우주원시의 깊은 뜻이 하루 아침에 드러나니 이는 퇴계 獨到의 공인 것이다.

VII. 退溪 太極圖解의 箋釋

퇴계선생은 성학십도 제1 태극도의 주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 이것이 이른바 無極而太極이다. 곧 음양이면서 그 본체가 음양과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ㄱ], 이는 ○이 動하여 陽이 되고, 靜하여 陰이 됨을 의미한다. 가운데 ○는 그 본체이다. [그림 ㄴ]는 [그림 ㄷ]의 根이다.



이는 음양이 變合하여 水, 火, 金, 木, 土를 낳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ㄷ], 이는 무극과 음양오행이 表合하여 틀이 없게 하는 것(所以)이다. ○ 乾男과 坤女가 氣로써 化한다는 것을 뜻한다. 각각 그 속성을 가지나 남녀는 하나의 태극이다. ○ 化生萬物은 形으로써 化한다는 것을 뜻한다. 각각 그 속성을 가

지나 만물은 하나의 태극이다.



[그림 기] [그림 니] [그림 디] [그림 리] [그림 미]

태극도를 위에서 아래로 살펴보면, 陰靜陽動을 의미하는 음양 두 고리 [그림 미]의 外圍가 포함하는 세 고리를 제외하고, 둥근 테두리가 모두 열 개이다. 그 맨위의 테두리는 太極本然之妙로 바로 無極而太極이다. 그 동정이 이미 나누이고 음양이 이미 형상화하고 나서도 이른바 맨위의 테두리는 늘 가운데 있다. 음양 [그림 미]이 싸고 있는 작은 원 (○)은 本然之妙를 명시하며 음양과 분리된 적이 없다. 음양이 변함하여 오행이 생기고 水火金木土가 각기 한 개의 원을 가지는 것은 이른바 나누어 말한 것으로, 一物이 각각 하나의 태극이란 뜻이다. 水, 木, 火, 土, 金이 다시 한 테두리에 모이는 것은 이른바 합하여 말한다는 것으로 오행이 하나의 태극이란 뜻이다. 그런데 오행의 합을 얘기할 때 水, 火, 木, 金을 합치면서 土를 말하지 않는 까닭은 土가 四氣를 운행하므로 사기를 거론하면 土는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兩儀가 四象을 낳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아래 乾男坤女로 표기된 테두리는 이른바 남녀가 하나의 태극이란 것이다. 또 그 아래 만물화생이라 표기된 테두리는 이른바 하나의 태극이란 것이다. 이로써 태극의 묘는 천지 사이에 유행하여 없는 곳이 없으며 태극을 수용하지 않은 사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의 태극도에 대한 관조와 이해가 바로 이러한 뜻이다. 이에서 周子와 道의 묘리에 대한 이해가 무언중에 일치함과 그 통찰력의 깊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VIII. 結 論

퇴계의 學은 멀리로는 공·맹을 바탕으로 하고 가까이는 程·朱를 모범으로 하여 거경궁리의 학설을 계승해서 성학십도의 체계를 창출하였다. 먼저 태극을 계시하여 조화의 이치를 밝혀 도술의 연원으로 삼았다. 퇴계의,

聖人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실마리를 구하고 이로부터 小學, 大學 등에 힘을 써서 학문이 원숙했을 때 학술의 본원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窮理盡性하여 天命에 통달하는 것인 동시에 이른바 신묘한 변화의 도리를 터득한 完美한 德인 것이다.

는 말씀을 보면, 그 경지가 이미 儒門의 堂奧에 들어가 聖域 가운데서 우유자적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김 언 종 譯)